

# 도감, 자연의 섭리 깨우쳐 주는 길라잡이

도감의 역사와 그 쓰임새...

기초과학의 탐구자료로서 학술적 가치 높아

이종국 | 해천대 출판학과 교수

도감이란 자연과 문화현상을 체계적으로 모아 도시한 것으로, 여기에 해설을 붙인 책을 일컫는다. 도감의 편집원칙은 여러 사물을 소재로 삼되, 표준적인 뒹뒹이를 구현하는 데 있다. 국내 도감출판은 1950년대 들어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는데, 오늘날에는 그 종류나 완성도에서 상당히 발전했다. 생태계 파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도감은 자연을 아끼고 기리는 마음을 키워준다는 면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 말하기를 인간은 끝없이 의심하는 존재며, 이 의심을 하나 하나씩 해결하려는 노력이 학문을 낳았다고 설명했다. 파스칼도 《팡세》에서, 인간은 자연적인 존재로서 연약하지만 생각하는 존재로서 고귀하다고 말하면서, 자연을 탐구하되 추리나 경험에 의지하기보다는 좀더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봤다. 여기서, 굳이 학문이나 사유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주장해온 선각자들의 말을 옮기지 않더라도, 학문과 사유의 세계를 실어 나르는 출판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소재를 선택해 적절한 해답을 제시하려는 노력에 힘입어 끊임없이 발전해왔다.

## 사물에 대한 표준성을 그림으로 재현한 출판물

출판을 일컬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문자나 그림으로 표현해 뒷날에 전하는 문화적 행위라 하는데, 그 중심이 되는 매개방식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문자와 그림, 이렇게 양대요소를 일컫는다. 그런데 이들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한쪽에만 사상과 감정을 전달할 경우보다는 다른 한쪽에서 보완될 때 좀더 설득력이 강한 전달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본문을 보충해줄 곁들임 방식인 '삽화'를 필요로 하게 됐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그림만 노출시켜 그 전모를 드러내는 방식도 창안하게 됐다. 여기서, 후자의 방식이 오

늘날 말하는 도감으로 대표된다.

도감(pictorial book)이란 그림(사진, 일러스트레이션)을 포함한 주된 표현방식으로 선택한 도서유형의 하나다. 요컨대, 문자배열 형식을 지양해 그림이나 사진 등의 시각적 소재를 '보고 식별하는 대상'으로 꾸며낸 책을 말한다. 이를 좀더 간추려 말하면, 도감이란 자연·문화현상을 체계적으로 모아 도시(圖示)한 것이며, 여기에 해설을 붙인 책을 일컫는다.

그런데 도감은 여러 사물을 소재로 삼되, 늘 표준적인 뒹뒹이를 구현하려는 원칙이 출판이념으로 반영되고 있다. 비록 기형적인 어떤 대상을 소개한다 할지라도 '원형은 이런 것이다'는 전형의 제시에 충실하게 된다. 가령, 《한국의 잠자리·메뚜기》(김정환, 교학사)라는 도감에서 보면, 그 각각의 원형을 소개하고 그것들의 뒹뒹이를 자세히 식별할 수 있도록 도시해 놓고 있다.

우리는 짐짓 잠자리의 날개는 몇 개며, 양쪽으로 두 개씩 달려 있다면 뒷날개가 긴 것인지, 아니면 앞날개가 어떤 모양인지 미뤄 생각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그런데 한국의 대표적인 잠자리는 앞날개가 넓고 쭈뼛하며, 뒷날개는 좁고 여린 모양새에, 이를 지탱한 몸체가 아홉 개의 몸마디로 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가을하늘을 수놓는 그 잠자리와 꼭 같은 한 마리의 잠자리가 도감 속에 고스란히 재현돼 있는 것이다.

이 사례로 볼 때 도감은 그 자의(字義)에서 드러나듯이 어떤 사물의 형상을 거울에 비춰보듯 본뜬 것, 또 그런 모양새의 본모습을 보여 주는 출판물 가운데 한 유형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 사진술과 인쇄술 발전으로 근대적 도감 출현

생각해 보면, 모든 출판물은 이미 그림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예컨대, 4만년 전에 완성된 인류 최초의 기록인 알타미라 동굴벽화가 그런 것이고, 이집트 파라오들의 전설이 문혀 있는 피라미드 벽면기록들, 그리고 파피루스 두루마리(papyrus roll) 등이 모두 한가지다. 그런가 하면, 돈황에서 발견된 최초의 간기(刊記)가 기록된 인쇄물로 유명한 《금강경》(868)도 그 앞부분이 그림으로 장식돼 있었다. 《금강경》에 나타난 그림솜씨는 매우 빼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는데, 9세기의 인쇄물이 이 정도고 보면, 훨씬 이전부터 책에 그림을 넣는 방식이 존재했을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 '도감'이란 사물에 대한 표준성을 그림으로 재현하는 출판형식이라 했는데, 좀더 근대적인 의미의 업적을 든다면 코메니우스가 저술한 《세계도회》(Orbis Sensualium Pictus)가 있다. 1658년에 저술된 이 책은 감각으로 드러난 사물의 모양을 그림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시각적인 식별에 의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유

도해야 한다는 교수-학습 아이디어를 반영한 것으로 유명하다.

일찍부터 인쇄·출판술에 눈떴던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11세기초 《다라니경》(1007)에 그림을 넣어 화려하게 꾸민 책이 존재했다. 또, 1020년에 간행된 《대장경》의 그림은 특별히 유명하며, 이 경전은 뒷날 거둬 적어내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출판물로 기록되고 있을 정도다. 이 같은 일련의 경전들이 그림을 부분적으로 넣은 삽도판 형식이었다면, 책면 거의 전체를 그림으로 장식한 본격적인 도감인 《묘법연화경》(1275~1308 사이)이라든지, 조선왕조 시대에 이르러 《삼강행실도》(1431), 《병장도설》(1451), 《오륜행실도》

(1779) 등 수많은 도감류들이 간행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조선 정조대에 간행된 도감류(외규장각 장서)들은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장책물이어서 그 아름다움이 극치에 달하고 있다. 당시에 제작된 도감류들은 '의례'로 대표되는데, 이는 하나의 책이라기보다는 거대한 '도감형 조영물'로서 세계적으로도 압권의 위상을 점한다.

이렇듯, 옛적의 도감류(그림으로 표현한 출판물)들은 당초 그림에서 발전된 상형문자를 사용해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가운데, 벽면이나 압석, 벽돌, 나뭇조각 따위에 삶의 내용을 표현했고, 뒷날 종이 발명되면서부터 필사하거나 인쇄술로 표현하는 등 출판의 발전현상과 그 궤를 함께 해왔던 것이다.

도감의 변천은 광학기술(사진술)의 발전과 깊은 관계가 있다. 발터 벤야민에 따르면, 사진술은 유일한 현존성을 또 다른 수단에 동일하게 옮겨 놓은 재현술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사진은 아주 미세한 자연현상에 이르기까지 필름으로 담아내는데 성공했으며, 이는 또한 복제술(인쇄술)의 발전과 전폭적으로 연결돼 있다.

### 1960년대 원색도감 시대 열려

우리나라에서도, 1950년대에 이르러 도감류가 출판되기 시작한 것을 보면, 사진술과 인쇄복제술이 어느 정도 분개도에 오른 환경적 여건과 무관하지 않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50년대 이후 2000년 현재까지 전국의 출판사에서 발행된 도감류는 줄잡아 1,500여종에 이른다 (www.dlibrary.go.kr 참조).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출판계에 도감류가 출판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중·후반부터라고 본다. 예컨대, 조복성·김창환 교수가 지은 《곤충도감(나비편·나방편)》(장왕사)이 1956년 2월에 선보였는데, 이는 동류의 도감류 가운데 선두업자에 해당된다. 1958년 3월 최초의 의학도감인 《최신해부도감》(김사달, 수문사)이 나왔고, 뒤이어 식물(또는 생물), 동물도감 등이 점차 발행실적을 보이기 시작했다. 《생물도감》(박만규, 문화교육출판사, 1961.4), 《최신생물도감》(정태현, 문리사, 1961.8), 《학생생물도감》(최기철·이영노, 현대과학사, 1962.2), 《원색생물도감》(김재원, 합동도서, 1963.2) 등이 그런 사례들이다.

이렇듯, 도감류 출판물들은 주제유목으로 바순수과학, 의학 등을 소재범위로 삼으면서, 처음에는 국판 규격에 100쪽 내외이던 것이 4·6배판에 1천쪽을 넘는(강영선, 《한국동물도감》, 1,300쪽, 삼화출판사, 1962.12) 대규모 시리즈 체계로 발전해 나갔다. 특히, 1960년대 초반부터 도감출판에 진출한 삼화출판사의 경우는 '원색도감 시대'를 본격적으로 끌어올렸다. 《원색자연학습도감》(이정찬) 등의 출판이 그것이다. 또, 1959년부터 착수해 이후 40년 동안 추진해온 문교부의 《한국동식물도감(전38권)》은 삼화출판사, 국정교과서(주) 등에서 번갈아 발행 형식으로 출판됐으며, 학교현장에 교육교재로 널리 보급된 바 있다.

이후 1970~90년대로 넘어오면서 삼화출판사·동아출판사·아카데미서적·향문사·교학사·현암사·지식산업사 등이 비중 있는 도감류 출판실적을 올렸다. 아동·학생용 도감으로는 예림당·금성출판사·은하수·청솔·웅진닷컴 등에서 꾸준한 출판실적을 보였다. 교학사의 경우는 〈한국의 자연 시리즈〉를 내고 있는데, 《한국의 버섯》(박완희), 《한국의 동충하초》(성재모), 《한국의 독버섯·독식물》(배기환 외) 등 특이한 주제를 도감으로 펴내고 있어 주목된다.

### 기초과학의 탐구자료로서 중요해

지금까지 도감의 의의와 변천에 대해 간략하게 살폈다. 요약하면, 도감은 알고자 하는 사물의 모양새를 책면 위에 옮겨 그 명칭·성격·분포·활용성 등을 안내해 주는 전문서적의 하나다.

사람이 자연과 더불어 상생하는 한 자연현상



도감은 알고자 하는 사물의 모양새를 책면 위에 옮겨 그 명칭·성격·분포·활용성 등을 안내해주는 전문서적이다. 특히 도감은 기초과학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탐구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사진은 한 대형서점의 도감 코너.

에 대응한 구체적인 인지행위가 가담돼야만 자연을 누리거나 그와 더불어 삶을 꾸려갈 수 있게 된다. 도감의 활용성이 중요한 까닭은 이와 같은 원론적 의의 때문이다.

출판물이 하루에도 수십만권씩 쏟아지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도감과 같은 생생한 자연의 기록은 그렇게 흔히 접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쉽고 재미있는 표피적인 읽을거리라거나 만화 애니메이션이 판도를 장악한 처지고 보면, 엄청난 제작비를 감당해야만 하는 도감류 출판이 제대로 될 리 없다. 더구나, 도감은 어떤 특정한 자연의 대상(생·무생물 등)을 발견하고 그것에 학명을 매긴 '명감'에 근거해 주제별로 집록·정리한 자료인 까닭에 전문성이 강한 도서며, 이 때문에 독자권도 그리 넓지 않은 편이다. 도감은 그 명칭이 말해 주듯이 여전히 권위있고 무거운 존재인 것이다.

그래서 도감은 기초과학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탐구자료로서 큰 역할을 감당한다. 도감은 그 자체가 대자연의 섭리를 설명해 주는 길잡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자. 우리의 국토는 공해에 찌들어 반딧불이조차 멸종위기에 이르고 말았다. 어디 그뿐인가? 천연동물들은 밀렵꾼들에게 엄청난 수난을 당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자연보호를 대전제로 내건 상태에서 어서 빨리 우리의 산하에 숨죽여 있는 동·식물들을 도감 속으로 끌어들이어야만 한다. 도감의 존재는 학술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자연을 아끼고 기린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자리매김돼야 한다. ●